

❖ 협회장 신년 인사

존경하는 회원사 임직원, 업계 관계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는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력과 끈기로 건강도 지키시고, 기업 또한 훌륭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협회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과 함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업계 발전의 일환으로 「섬유기계 마케팅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협회가 튼튼해야 회원사 또한 사업을 경영하시는데 더욱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올 한올 실을 엮어 아름다운 의복을 만들어 가듯이, 한삽 한삽 힘을 모아서 쌓아 올리면 올 한해도 큰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회원사 여러분의 협회라고 여기시고 지지해 주시면 남부럽지 않은 섬유기계 협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년처럼 수출 현장과 세계 각 국의 전시장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2021년 협회 정기 총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또는 서면 형식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협회 및 회원사 활동은 매월 발송되는 NEWS LETTER 「섬유기계 산업정보」를 참조해 주시고, 더 많은 협회 활동 및 회원사 동정 등 알찬 내용을 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성공적인 대한민국 국제섬유기계전 (KORTEX 2022)을 목표로 추진하는 온라인 전시회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건강을 지켜내시고, 어려움을 이겨내시어 더욱 성장한 기업 활동을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장 손종규 배상

❖ 무역 및 시장정보

■ 일성기계공업(주), (주)미광기계

「무역의 날」 수출유공기업 경북도지사 표창 수상
우리 협회 회원사인 일성기계공업(주)과 (주)미광기계가 무역의 날 기념 수출유공기업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일성기계공업(주) (대표 : 김재영)은 주력 생산품인 열처리기를 세계 일류 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 및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으로 동일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주)미광기계 (대표 : 송병호 외 2인)는 생산품인 텐터기 및 코팅기의 품질향상 및 신시장 개척에 전력하여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인도 등 5개국의 신시장에서 20%이상의 수출 증대를 달성하였다.

그리고 우리 협회 문승옥 전무이사가 해외전시회 공동관 운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지원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유공자 경북도지사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다.



(주)미광기계 수출유공 공로패 수상 기념사진

■ 베트남 섬유산업 동향

2020년 베트남의 섬유·의류 수출은 전년대비 15% 감소해 34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감소폭은 2020년 세계 섬유 수요가 20%이상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베트남의 섬유·의류 기업들은 현금 흐름을 높이기 위해 주로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이런 저가품의 생산 비중 확대는 중국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최근에 최종 타결된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영향으로 중국내 베트남 생산 의류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8월 유럽연합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향후 유럽 국가들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 : 텍스타일라이프>

■ 섬유기계 수·출입 통계 (2020년 1월~11월)

		수 출	수 입
금액 (천\$)		1,419,744	1,563,010
국 가 별 (천\$)	중 국	78,369	1,118,955
	미 국	747,061	12,966
	일 본	10,211	39,578
	베트남	112,035	190,596
	유럽(계)	92,751	81,902

■ 해외전시회 소식

■ 2021년 정부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대행 KOTRA)는 지난 12월 31일에 2021년 정부 국고지원 해외전시회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 협회는 ITMA ASIA 2021 (2021.06.12 ~ 06.16 / 중국 상해)과 ITM 2021 (2021.06.22 ~ 06.26 / 터키 이스탄불) 전시회를 신청하여, ITMA ASIA 2021은 정식 선정되었고 ITM 2021은 예비 후보 1번으로 선정되었다. 2개 전시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부스 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대리점 개설 및 수출 상담, 홍보 지원 등 업체의 수출 영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소식

■ 다층 블로운 필름기 국산화 개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원장 : 성하경)은 최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을 통해 이종소재 간 접착이 가능한 다층의 코팅 필름을 제조하는 국산화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섬유뿐만 아니라 신발, 의류제품에 사용되는 핫멜트 필름과 PET인 이종소재가 서로 접착이 가능한 리사이클 접착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친환경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두께의 박막화 실현을 목표로 블로운 시스템의 국산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신발 산업군의 신발제조공정에 있어 기존의 봉제 방식(Stitch)이 아닌 접착방식(Bonding)이 적용되면서 이 개발 사업은 다이텍연구원과 개발 협업을 통해 기업의 접착 소재 기술, 블로운 시스템의 핵심 부품 국산화, 공정단축 등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발기술을 확립하고 있다.



다층 블로운 필름 시스템

<출처 : 동연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 이인성 센터장>

■ 편침제작을 위한 리벳팅 일괄공정 시스템 개발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편직기 편침 생산업체인 (주)니텍스제침 (대표 : 이기황)과 공동으로 기능성 섬유 편침 제작을 위한 더블컷팅 구할공정 및 레이저 리벳팅 일괄공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번에 기술개발된 편직기용 편침은 3세대 편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사업」으로, 1년 여간의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차세대 편침 제조용 다공정 이송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 독일의 Groz-Beckert사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독자적인 편침 생산 기술개발을 통하여 선진사와의 품질격차를 줄이고, 설계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핵심 공정을 연구·개발하여 편침의 수명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기술개발을 통하여 1건의 특허 및 1건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독일 제품에 근접한 품질로 수출시장 확보 및 국내 편침 수입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편직산업의 핵심부품인 편침의 생산성 증대 및 품질향상이 예상되는 바, 세계 시장 점유율이 약 1%이상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동연구원 첨단제품장비연구센터 정한규 센터장>

■ **본부장급 보직 인사 단행**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은 5본부 1단 3실 8센터의 조직 개편에 이어 금년 1월 1일부로 다음과 같이 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하였다.

- 경영전략본부 : 허동찬 본부장
- 기계장비연구본부 : 박시우 본부장
- 스마트생산연구본부 : 박운환 본부장
- 첨단제품연구본부 : 이상진 본부장
- 기업협력본부 : 박대규 본부장
- 미래전략추진단 : 이정호 단장

❖ **회원사 동정**

■ **(주)에이스기계,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주)에이스기계 (대표 : 김희구)는 다이텍연구원과 스마트 공정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생산성이 기존 2드라이브 방식보다 약 40% 향상된 4드라이브 방식의 신기종 염색기를 개발 중이다. 이러한 신기종 점보 염색기 개발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한국에너지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 **일성기계공업(주), 김천시와 공장 건립 투자양해각서 체결**
 일성기계공업(주) (대표 : 김재영)은 지난해 12월 28일 필름가공용기계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김천일반산업단지 약 2만평 부지에 총 400억원을 투자하는 양해각서를 김천시와 체결하였다. 일성기계공업은 1962년에 설립되어 매출액 약600억 원 (2019년 기준) 규모의 섬유가공기계 전문 생산기업으로써 섬유 열처리기의 세계 수출시장에서 30%이상을 점유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일성기계공업(주)-김천시 투자양해각서 체결 기념사진

<출처 : TIN 뉴스>